

KCC 임직원, 겨울철 소외이웃에 성금 기탁

연탄은행·주사랑공동체 방문·기부

KCC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0만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KCC는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과 서울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 설립 기관인 주사랑공동체를 각각 방문해 성금 500만원씩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KCC 사내 커피 머신 앞에 놓인 모금함에 임직원들이 한해 동안 적립해 마련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발적으로 적립한 것이 1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연탄은행은 성금으로 연탄을 구입해도 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월부터는 연탄 후원도 줄어들고, 연탄값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KCC의 작은 정성이 이들에게도



KCC는 지난 11일 서울연탄은행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왼쪽부터)KCC 김상준 부장, 정화민 이사, 서울연탄은행 허기복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사랑 공동체에 기부한 성금은 베이비박스유기영아

지원 등 전체적인 베이비룸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마트 파이프'로 진화하려면



기자 수첩

김 나 인
(산업부)

바야흐로 '미디어 빅뱅' 시대. 미국 미디어 업계에 부는 지각변동이 무섭다. 2위 통신사 AT&T는 2014년 미국 최대 위성TV '디렉TV'를 인수한 데 이어 영화사 워너브러더스, 케이블뉴스 CN N, 음반, 잡지사를 소유한 거대 콘텐츠 그룹인 타임워너도 합병했다.

마키마우스가 상징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였던 월트 디즈니는 픽사, 마블, 스포츠채널 ESPN을 사들인 데 이어 지난해 21세기 폭스를 거액에 인수해 20개 채널과 영화 스튜디오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자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 플러스'로 '넷플릭스'와의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AT&T도 워너미디어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 공통점은 통신사가 TV채널과 영화, 잡지 등을 보유하고 콘텐츠 제작사가 채널을 확보한 '수직결합'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각각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보급한 셈이다.

국내도 유료방송 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내 3위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도 다양한 케이블TV 인수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다. 부가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순 네트워크인 '바보 파이프(dump pipe)'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내 통신사들의 '빅딜' 움직임이다. 어떤 M&A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 순위 계단을 단숨에 오르는 '보증수표'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M&A 움직임은 단순히 어느 통신사의 모 케이블TV 인수 등 단편적인 가입자 확보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눈앞의 가입자 보다 콘텐츠다. 랜들 스티븐슨 AT&T 회장은 타임워너를 인수하며 "프리미엄 콘텐츠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와 지상파의 결합은 각각 양쪽에 부족한 콘텐츠와 플랫폼의 목마름을 채웠다는 데서 의미 있는 결합으로 꼽힌다. 5G 시대를 주름잡는 '스마트한 파이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똑똑한 결합이 필요하다.

/silki@metroseoul.co.kr

카카오게임즈 초등생 대상 진로 멘토링 교육

카카오게임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오프라인 체험 전시전 '카카오게임 뮤지엄'에서 초등학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게임 뮤지엄은 지난해 10월 카카오게임즈가 '카카오프렌즈'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키와 협업해 흥대 카카오프렌즈 뮤지엄에 개관한 전시 프로젝트다. '카카오배틀그라운드', '프렌즈레이싱', '검은사막' 등 카카오게임의 대표 콘텐츠를 전시 문화와 접목했다.

카카오게임 뮤지엄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게임 리더러시 진로 멘토링 및 체험 교육'의 일환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1일 100여명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은석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게임 업계 최근, 취업 방향성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카카오



'카카오게임 뮤지엄'에서 진행된 진로 멘토링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뮤지엄을 소개하고, '프렌즈레이싱'에서 1등을 차지한 학생에게 한정판 '우주 라이언 보조배터리'를 증정했다. /김나인 기자 silki@

오늘의 운세 2월 13일 (음 1월 9일) http://www.saju4000.com

- 48년생** 용띠, 닭띠와의 거래가 순조롭다. 60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어 이득이 많은 날. 72년생 고집을 세우면 가족에게도 외면당하는 법. 84년생 망국의 옥새는 그냥 전시물에 지나지 않는다.
- 49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1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나니 주의. 73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8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편안한 하루가 된다.
- 50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62년생 마른 눈에 물 들어 오듯이 고민이 일시에 해결. 7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86년생 성공의 기운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
- 51년생** 오늘의 재물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결과이다. 63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75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은 하지 마라. 87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않아서 판단.
- 52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64년생 확실한 거절이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한다. 76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뿔리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88년생 향수를 뿌리면 아름다운 인연이 오히려 돌아온다.
- 53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날아갈 듯. 65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7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89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 5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6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련도 없이 마무리된다. 78년생 99%의 노력도 1%의 영감으로 결실을 본다. 90년생 힘든 일은 선배님의 도움으로 해결.
- 55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피라. 67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79년생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든 참여. 91년생 외로움보다 참가 힘든 건 그리움이 아닐까.
- 56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68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본다 고쳐지지 않는다. 8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92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 57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미리 피하라. 69년생 껌질을 깨뜨리고 나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81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 가서 분품이랄 듯. 93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못가신 신경 쓰지 마라.
- 58년생**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히 여겨볼 일. 70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들 기준에 따를 필요 없다. 82년생 좋은 꿈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9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 마음으로.
- 59년생** 덕이 높은 승은 실력이 드러나니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7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83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95년생 매매도장 찍을 일이 있으니 원행은 미루라.

김상회의四季 나이 들수록 지갑은 열려라

장유유서의 논리가 지배하던 유교사회에서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하는 것 자체가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장로서 존경받아야 할 덕목이었지만은 현재사회에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대놓고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혜롭게 나이를 먹어가는 팀으로써 여러 조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 으뜸인 것은 나이가 들수록 되도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려라."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그 외에 비슷한 논리로 노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한 빚이니 소득의 10%는 친구나 동료를 위해 투자하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팔팔하게 운동을 하라 라던가 스킨십 없이 홀로 지내면 빨리 죽는단언가 하는 여러 진중한 농담 같은 진단들이 있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일 자체가 조금도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씁쓸한 진실로 보이기도 한다. 혹여 사고로 일찍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 노병사(老病死)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특히 인간들만큼은 늙어 감을 여유 있게 관조하거란 싶지 않다. 수행이나 도를 통하여 해안을 얻은 사람들이 아닌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한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미래예측의 역(易)을 기본으로 하는 사주명리학의 통찰을 통해 인생의 길을 관조하는 운(運)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등바등하지 않고 삶을 바라보는 관조의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이는 많은 인생설계에 분명 도움이 되는 예측 학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좋은 기운이 오는 때에는 마음에 먹은 일을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배가의 성과가 있으며 운이 약하게 들어올 때는 조심하고 삼가는 태도를 유지하면 흥은 감소한다는 것을 역은 가르치고 있다. 지혜로운 나이 먹음이란, 때와 조화를 이루고 맞추어 노력할 줄 아는 것 이것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태도다. 명리학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하심 하는 태도로 자연과 삶과 환경에 순응해야 함을 알려주는 인문학이라 본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주역을 사서 삼경에 넣어 군자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덕목으로 삼은 것이리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3					2
2			1	9	4			3
	6		7					1
		6				1		
5			1					7
	4		5		7			8
		4		2		8		
7								6
	9		6	4	3			2

						7		
	1	2	3			9		
4		9		8			1	6
	7		8		4			6
		8		2		5		
		3	7		6	4		
9	8			7		6		
1	2					5		
		7	6	4				2

스도쿠 정답

1	2	3	4	5	6	7	8	9
9	7	8	5	6	2	1	3	4
5	6	8	1	2	7	9	4	3
6	8	2	9	5	1	7	4	3
2	9	6	1	7	8	3	5	4
7	5	1	2	8	9	4	6	3
8	1	6	5	2	3	7	9	4
4	9	5	7	6	1	2	8	3
3	2	7	9	8	6	5	1	4

문제 제공 = 보너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42호